

■ 뱃삿 지원 1년, 전남 섬 생활 어떻게 변했나



흑산도 섬 주민들이 목포로 나가기 위해 쾌속선에 오르고 있다. '섬주민 운임지원 사업' 이후 여객선 승객은 30~40% 늘었으며, 도서지방 주민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흑산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육지서 장 보고 섬끼리 축구대회

‘2만2천 원이 5천원으로.’

1만7천원이 흑산도 주민의 생활을 바꿨다. 육지를 오가는 섬주민들의 뱃삿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섬주민 운임지원 사업’이 전남 도서지방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장 보러 육지 갑니다=목포 여객선 터미널 안은 평일에도 매일 섬으로 가는 사람으로 북적인다. 대형 마트 상표가 새겨진 커다란 봉투에 과자·식품·과일 등을 담은 사람, 유명 상표 옷과 생일 케이크를 든 사람들이 많다. 커다란 박스를 머리에 얹고 힘들게 발걸음을 옮기던 아줌마, 아저씨는 눈에 띄게 젊었다. 쾌속선으로 2시간 걸리는 흑산도 선착장도 육지(목포)로 나가는 사람들로 만원이다. ㈜남해고속 관계자는 “1년 전에 비해 승객이 약 30~40% 늘었다”면서 “섬주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주민 김선복(여·33·흑산면 진리1구)씨는 여섯 살 난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동네 보건소 대신 목포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년 전에는 웬만한 병이 아니면 육지로 나갈 생각을 못했다. 왕복 뱃삿(어른 4만4천원, 아이 2만6천원)에 택시비·병원비를 합치면 10만원이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섬과 섬 사이 왕래도 늘었다. ‘큰

할인혜택에 주민 수 4,572명 늘어 주말엔 공동화 현상...식당 등 폐업

▲섬주민 운임지원 사업=운임비 5천원을 초과하는 요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 목포~가거도(4만3천200원), 목포~만재(3만9천원), 비금·도초~가거도(2만9천950원) 등의 구간도 섬 주민은 5천원 만 내면 된다. 5천원 미만인 항로는 20%를 지원한다.

바다축구동호회’ 회원인 주민 김성일(42·흑산면 진리1구 이장)씨는 인근 비금·도초 주민과 함께 친선 축구대회를 한다. 과거에는 잘해야 1년에 한 차례 뿐이었지만 뱃삿 부담이 없어진 후 너댓 번씩 다른 섬으로 넘어간다.

김씨는 “대회를 자주 열고 싶어 20여 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기에 그동안 돈이 만만치 않았지만, 지금은 대회 날이면 양쪽 섬 주민들끼리 서로 음식을 만들고 가서 마을 잔치를 벌인다”고 웃었다.

▷할인받으려면 ‘섬으로’=흑산면 소속 유인도(有人島) 11곳(대흑산도·장도·영산도·대둔도·다물도·홍도·상태도·중태도·하태도·가거도·만재도)의 인구는 지난 2005년 말 4천300명(1천957가구)

이었지만, 1년 새 477명(301가구)이 늘었다.

여수시 삼산면 주민(고도·서도·동도·초도·손죽도·소거문도·평도·광도)도 2천323명(1천577가구)에서 215명(116가구)이 증가했다. 여객선이 기항하는 전남 22개 섬 전체로 볼 때 지난해 3월1일 이후 주민 수가 8만8천574명에서 9만3천146명으로 5.1%(4천572명) 늘어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 전입자는 농어업인·회사원·직업군인·학생·공무원 등 직업이 다양하다”며 “육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혜택을 보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사례가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역 상인, ‘울상’=왕래가 잦

아지면서 금요일 오후부터는 ‘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할인 혜택 이후 섬에 근무하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주말·휴일을 육지에 있는 가족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도 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던 과거와 달리 ‘꺼리’를 만들어 육지로 나간다. 이발·목욕·계모임·쇼핑·영화 관람 등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다. 물에 유학보낸 자식들의 하숙·자취방에도 자주 들려 용돈과 밑반찬을 챙겨준다.

여파는 고스란히 지역 상가에 미쳤다. 지난 1년 새 흑산도에 있던 소규모 식당 3~4곳, 유흥업소 10여 곳 등이 문을 닫았다. 이런 양상은 전남도내 다른 섬도 마찬가지다.

식당을 하는 배호섭(45·흑산면 예리1구)씨는 “예전에 서로 가게를 얻으려고 해 상가를 구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빈 상가가 많다”며 “그나마 남아있는 식당들도 매상이 절반 가량 줄었다”고 걱정했다.

신안군 김형주(55) 흑산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섬의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면서 “섬 주민 지원을 조금 줄더라도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흑산도=조완남·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지법 “전관예우 척결”

전관 개업 1년 내 수임 사건

타지역 출신이 재판장 맡아

광주지방법원이 ‘전관예우’(前官禮遇) 관행 척결에 나섰다.

앞으로 재직하다 개업한 지 1년이 안 된 변호사가 수임하는 형사 사건의 경우 광주·전남이 아닌 타지역 출신이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관할하게 된다.

광주지법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하고, ‘특별관리 형사부’(이하 특별부) 부장판사에 서울 출신의 김태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지법은 또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단독 재판부 1곳(기준 6곳)과 민사단독 재판부 2곳(기준 7곳)을 증설하고, 위중·무고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재판관의 공정성과 신속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에 경험 많은 부장판사 2명을 배치했다.

광주지법 이명철 공보판사는 “전관예우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사

▲전관예우(前官禮遇)=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폐해.

▲특별관리 형사부=법원에 근무하다 개업한 지 1년 미만인 변호사가 수임하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2003~2005년 구속적부심 사건 중 광주지역 변호사 1인당 평균 보석사건 수임건수는 3.5건이었으나, ‘전관 변호사’는 6배나 많은 19.2건씩 수임했다. 또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법사위, 광주 광산)이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광주지법 특별부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78.1%로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058) 김종두



도서관서 여학생 ‘치맛속 몰카’ 서울대 치대생 정상 졸업 못해

서울대 치대 졸업반 학생이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사실이 문제가 돼 정상적인 졸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몰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대 의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여학생 A씨는 갑자기 치마 밑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책상 건너편엔 B씨가 앉아 있었다.

A씨는 B씨를 열람실 밖으로 불러내 디지털 카메라를 확인했다. B씨의 카메라에는 여학생 하체를 찍은 사진이 50여 장 저장돼 있었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대 학생회는 B씨의 징계를 건의하는 설문조사를 벌여 ‘중징계’에 찬성하는 의견(50.7%—을고내 성폭력·성희롱 상담소에 제출했다. B씨는 ‘한 순간의 어긋난 호기심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과문을 도서관 게시판에 한 달간 붙이고 피해 여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했다.

서울대 학생징계위원회는 그러나 ‘몰카’ 책임을 물어 치의학과 본과 4학년인 B씨에게 6개월 정학 처분을 내렸다. 오는 26일 졸업을 앞둔 B씨는 ‘하루빨리 치과 의사가 돼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겠다’는 꿈을 잠시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연필뉴스

하급자 부인들에 사기 육군 소령 부인 구속

광주 동부경찰은 20일 남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하급자 부인들에게 돈을 받고 백화점 지분을 허위 판매한 육군 모 부대 소령 부인 김모(43)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부대 하급자 부인 강모(34)씨 등 2명에게 “광주 H백화점 명품 코너 지분을 할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여 12회에 걸쳐 2억1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광주 동부경찰은 광주 시내 카메라 대리점 5곳에 잠입, 카메라 22대(시가 3천360만원)를 훔친 김모(51·전과 16번)씨를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임주형기자 jhim@

광주서 카메라 22대 훔쳐

광주 동부경찰은 광주 시내 카메라 대리점 5곳에 잠입, 카메라 22대(시가 3천360만원)를 훔친 김모(51·전과 16번)씨를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임주형기자 jhim@

“옆 차선 차가 더 좋다” 車 빼앗아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고급 승용차를 빼앗아 탄 10대 5명이 경찰에 달미.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19) 군 등 5명은 지난 19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밀리오레 앞에서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이모(17) 군 등 2명이 토스카 승용차를 몰고 있는 것을 보고 “차를 바꿔 타자”고 협박, 이 군 등의 차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 인근 도로까지 1시간10분가량 운전한 것.

○“김 군 등은 “이 군 등의 차가 우리의 것보다 좋아 한번 운전해보고 싶었다”고 진술.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세균감염방지를 위한 환경대책에 만족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전염 세균들 99.99% 제거하여 당신의 건강을 책임져드립니다.



신제품 BACTERICIDE Clean Hospitala 박제합니다

Advertisement for '다들바이오틱' (Dall Bio) featuring a newspaper clipping and a list of services. The newspaper clipping is from '朝鮮日報' (Chosun Ilbo) and discusses a case of a woman who was sexually abused by a doctor. The list of services includes: 1. 24-hour emergency response, 2. On-site disinfection, 3. Disinfection of medical equipment, 4. Disinfection of hospital rooms, 5. Disinfection of hospital corridors, 6. Disinfection of hospital elevators, 7. Disinfection of hospital restrooms, 8. Disinfection of hospital waiting areas, 9. Disinfection of hospital parking lots, 10. Disinfection of hospital grounds.

(주)다들바이오틱 전남 북총판 [062] 531-2811 011-8616-5258